Entertainment p/20

'꽃저녀' 심은경 욕 찰지네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제293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아들 이전 아빠가 1등이야"

나믄 빠지는 카라 "앞으론 4인조" p/18

중소기업 '구세주' 된 소셜커머스

떡볶이·물티슈 등 히트상품 브랜드 60~80% 차지
낮은 수수료에 맞춤형 콘텐츠 '동반성장 모범사례'

"잘할 수 있지?" 엄마마음 아빠마음 똑같은 마음 14일 오후 광주 북구 제31보병사단에서 2014년 첫 현역병 입영식이 열렸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왼쪽)와 아버지가 아들의 군화끈을 매주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 제31보병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훈련병들이 입소하면 군복으로 갈아 입혀 마주나온 가족과 다시 한번 인사시키는 '감동행사'를 펼치고 있다. 제31보병사단관의 전통으로, 군복을 입은 자식의 늠름한 모습에 가족들이 행복해하자 이 같은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신병 입영행사에는 현역과 상근예비역 등 225명이 입소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그루나무'라는 소형 식품업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떡볶이 막창 등 음식 맛은 자신 있었지만 제품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 이때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연락이 왔다. 1980년대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았던 떡볶이를 만들어 팔아보자는 제안과 함께. 이에 그루나무는 밀가루로 만든 떡에 푸짐한 양념을 곁들인 '80년대 맛'으로 다시 태어났고 7개월 만에 27만 개가 팔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매출액은 11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2명이었던 직원 수는 40명으로 불어났다. 기존 유통 채널에서 외면받던 이 브랜드는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상태다.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광고해 유명한 물티슈 브랜드 '몽드드'는 오픈마켓에서 주로 영업을 했다. 유명인이 광고를 한다는 소문 덕에 소비자 반응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판매 채널로 소셜커머스를 추가했고 1시간 만에 4만 개가 팔리는 성과를 올리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소셜커머스에서 팔린 이 회사 물티슈는 17만 개이며 매출액은 40억원대다.

국내 중소기업이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

좋은 물건을 만들고도 이를 알릴 기회나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갖추지 못해 빛을 발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모바일 쇼핑족이 몰리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손을 잡으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소셜커머스 역시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급자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으로 꼽을 만하다.

티몬 쿠팡 그루폰 등이 이끄는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품을 검색하면 많게는 수백 개가 리스트에 오르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군 중에서 상품기획자(MD)가 선택을 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 쇼핑족의 주류인 2030 여성에게 어필하는 사용자환경(UI)을 적용해 공급자가 누구든 상품성만 있으면 쉽게 클릭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판매 상위 100개 상품 가운데 60개 이상은 중소기업 브랜드다. 신성에프엔비의 '루데이빗 견과', 다슬의 '뜨끈이 핫팩', 니스토어의 '논슬립옷걸이' 등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패션·뷰티 분야에서의 중기 브랜드 성장은 눈에 띈다. 메이퍼플레인의 의류 잡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카오리온', 카버코리아의 'A.H.C', 뷰티피플인터내셔널의 '뷰디피플' 등은 매 딜마다 수천 개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꽃 딜'로 부상했다.

티몬 역시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6개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공급한 것이다. '몽드드'(육아), '플리진'(패션), '미녀공장'(화장품) 등은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능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김동근(36) 그루나무 대표는 "홈쇼핑이나 백화점에 비해 수수료도 낮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고민인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구성해준다는 점에서 소셜커머스의 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떡볶이만 해도 80년대 '추억'을 키워드로 '철수와 영희' 캐릭터를 도입할 것을 조언받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미세먼지, 날씨와 함께 예보

기상청서 황사 예보 업무와 통합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업무를 합친 '환경 기상 통합예보실'이 다음달 14일 기상청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황사 예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청에 환경·기상 통합예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와 별도로 발표됐던 미세먼지 예보는 이달 20일부터 기상통보문에 추가해 함께 발표한다. 양 기관은 발표 창구 이원화에 따른 혼선과 예보 정확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예보도 통합키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예보업인 태스크포스 인력과 국립기상연구소 황사 예보 인력은 다음 달 14일부터 통합예보실에서 함께 근무한다.

대기오염정보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정보 홈페이지, 트위터 등 기존 미세먼지 예보 전파 채널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다혜기자 yd@

'판교밸리'에 거는 기대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덩치를 키운 게임업체들이 판교로 향하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도 분당구 삼평동은 게임업계 집성촌으로 진화됐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한글과컴퓨터, 안랩 등이 판교로 사옥을 옮겼거나 이전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판교는 비싼 임대료의 강남, 외진 위치의 상암동과 가산 구로디지털단지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체지로 떠올랐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아울러 초창기 판교에 진출한 게임업체가 번창한 점도 업계에 입소문을 낳았다.

게임기업의 사세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14일 신사옥을 공개한 넥슨의 경우 판교 사옥이 기존 강남 사옥보다 2배 이상 커졌다. 1994년 벤처로 시작한 넥슨은 20년 사이 전 세계를 무대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대형 게임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가을에 서비스 15주년을 맞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누적 매출 2조원을 자랑한다.

소프트웨어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세계적 경쟁력을 검증받은 몇 안 되는 콘텐츠다. 한때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산업으로 게임이 손꼽혔지만 지금은 '무관심은커녕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후발 주자들이 매섭게 추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제2의 판교 밸리가 나오도록 더욱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

눈썹 가림에 14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에서 열린 '2014 산천어축제'에서 한 관광객이 맨손으로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만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는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김민준기자

뉴스 & 뉴스

쪽수 줄이고 가격 낮춘 '미니여권' 추가 발행

●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보다 쪽수는 줄이고 가격은 낮춘 '미니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48면으로 구성된 복수여권 외에 24면짜리 여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 5년 3만원, 5년 초과 10년 이내 3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신임 감사위원에 유진희·최재해 임명제청

●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유진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유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란 평을 듣고 있고, 최 사무차장은 감사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업무 전반에 밝다는 평가다.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황우여 "부채와의 전쟁 원년… 지방선거 오픈프라이머리 야권에 제안할 것"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안함과 동시에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언급하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며 "공무원 부패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정책특별위원회' 설치 계획과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차기 한은총재 여성 등 다각도 검토"

박 대통령 외신인터뷰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여성을 비롯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검토 중인 여성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 널리 생각하고 찾는 중이어서 특별히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한은 총재 후임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김임현 단국대 교수와 김대식 중앙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변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여러 나라와 이 사안에 공감을 이루고 이해를 더 높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생애 중 통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영어로 "Who knows(아무도 모르죠)"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 CNN 서울주재 특파원인 폴라 핸콕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한편 박 대통령은 13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진전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민준기자

"북, 공무원 사칭 해킹 메일 국내 다량 유포"

미래창조과학부는 북한 해킹조직이 민간 중소 IT업체에 대한 해킹과 안보 관련 기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 e메일을 다량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이 지난해 12월 공무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국방 관련 자문위원, 언론기자 등 159명에게 발송했다. 이달에는 북한 관련 학회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국방 관련 12개 기관 연구원에게 발송했으며,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에게는 설문조사 형태의 이메일 30건을 유포했다.

이에 미래부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기관 IT 시스템 유지 보수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와 중소 IT기업에 대해 보안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일반 국민들 역시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발송된 설문조사 형태의 이메일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와 동시에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헉! 조의금이 1100만원

법원 "세무공무원 해임 정당…직무 관련 금품수수"

부산 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 국세청 간부가 징계 해임된 뒤 복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0년 1월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 뒤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 인사를 하고 조의도 할 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 레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부친상 이후 신 전 회장에게 전화로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1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조계사의 부위원장도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위해 걸어나오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조계사를 떠나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박태만(왼쪽)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쌍주관 조합장에게 쓸간 목도리를 건네받는 모습이다. /뉴시스

"환자 이송중 뺑소니 구급차 무죄"

법원 "신호위반만 유죄"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신호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0시37분께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몰고 가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김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기도를 유지할 정도로 환자 상태가 위급했던 점, 이씨가 환자 이송 직후 사고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긴급 피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태화강 바지락 내일 시판

울산 태화강 바지락의 합법적인 판매가 16일 시작된다. 1987년 바지락 채취 중단 이후 26년 만이다.

울산시 남구는 오는 16일 태화강 하구 바지락 어장에서 위판장 개장식을 열기로 하고, 이날 초매식(첫 경매)에 내놓을 바지락을 14일부터 채취하기 시작했다.

태화강 하구에서는 바지락 성패와 종패가 6대4 비율로 잡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매에 나온 바지락 성패는 유통업자에게, 종패는 양식업자에게 각각 팔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업 허가 대상 어민 33명 가운데 어선을 보유한 8명에게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줬다.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문화향 흐르는 아미동 비석마을

테마 탐방로·문화학습관 등 조성…일자리 창출도 기여

부산 북항과 자갈치, 송도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산복도로 천마산로의 멋진 조망과 산복도로 산동네 아미골이 거듭 변신 중이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아미구역 사업들이 점차 결실을 맺어 아미골 곳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과 연접해 있는 아미동 비석마을은 종상으로 2억원이 투입돼 현재 마을지도 제작 및 테마 탐방로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테마 탐방로는 감천문화마을과 함께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제공 및 근현대사의 아픔 등을 소개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는 범죄예방 보안등 10개소 및 낡고 오래된 주택가 보안등 37개소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했다. 또 비석마을의 어둡고 칙칙한 골목길을 밝고, 안전하고 걷고 싶은 골목길로 조성했다.

또한 아미구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랜드마크가 될 아미문화학습관이 2월 초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시비 12억여 원을 들여 건립된 아미문화학습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1층 주민체험 프로그램실은 사진작가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체험교실 및 마을상품 제작 공간 등을 제공한다. 2층은 최민식 사진갤러리, 3층은 마을카페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2층에 마련된 최민식 갤러리에는 고 최민식 사진작가의 유품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1950~70년대 시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희귀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다음달 문을 열 아미구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랜드마크가 될 아미문화학습관(지하1 지상3층)은 14일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부산시 제공

다음으로 부민동지역은 2012년 시비 9억 원이 투입돼 임시수도 연결계단 정비, 산복도로변 옹벽특화 사업 등이 추진됐다.

삭막한 산복도로의 낡고 지저분한 옹벽 4곳(대티고개, 신정빌라, 부민경로당, 남부변전소 옹벽)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도입했다. 야간에는 낮 동안 축적한 태양광을 이용한 LED 야간조명시설 설치로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 산복도로 탐방객과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망쉼터 및 한형석 선생 거리 옹벽 정비 사업을 통해 근대 역사 문화 유산과 연계한 사업들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부민동을 지나 산복도로를 따라 서대신동 쪽으로 들어오면 작고 아늑한 고분도리 카페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건물 옥상에 도시농업용 상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도시농업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아미구역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낙후되고 불편한 산복도로 마을이 사람들이 찾는 마을,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균기자 hkk@metroseoul.co.kr

사상공단 도심재생사업 본격화

20억원 들여 용역 마무리…내년 착공

부산 사상공단 도심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14일 부산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부산 사상구 주례, 학장, 감전동 일대 3㎢를 노후산업단지 재생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도심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상공단 재생계획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 등 3200억원을 투입해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사상공단을 도심 속 첨단 산업단지로 만든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상공단 공업지구를 준공업지구나 주거지구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공단 내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업지구 용적률도 기존 250~300%에서 500%까지 늘어나 투자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사상공단이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공장과 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 산업지구로 거듭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공단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 품으로"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운대~송정 구간 폐선부지에 대한 일방적인 상업 개발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명 부패신고 시스템 도입

부산 기장군은 익명으로 공무원의 부패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홈페이지(www.gijang.go.kr)의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별도의 사이트(www.redwhistle.org)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제도 개선 의견과 미담 사례도 올릴 수 있다.

이 사이트는 IP 추적방지 기능을 갖춰 기장군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장군은 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익명신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격자무늬 코드)가 담긴 클린 스티커 1000장을 군청과 직속 기관, 읍·면사무소 등에 부착하고 QR코드가 있는 클린 명함 1천 장을 전체 직원과 민원인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젊은 시각 2013' 전시회

부산시립미술관은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3'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연다.

김소영, 정문식 작가의 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회화 8점과 설치작품 2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4시 미술관에서 열린다.

전국 첫 사회적 거래소 설립 논의

오늘 금융 포럼 개최

사회적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사회 투자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인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부산에서 시작된다.

전국 최초의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범시민적 논의의 장인 '2014년 사회적 금융 포럼'이 15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문가,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부산시와 사회적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업이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사회적 거래소 설립'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인사 말씀, 축사,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사회적 금융 국제 동향',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사회영향채권의 도입 방향', 조영복 부산대 교수가 '사회적 거래소 해외 사례 및 부산시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수 대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자본을 조성하고 투·융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노희진 위원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의 성과에 근거한 평가 또는 지급 메커니즘 도입 등 한국형 사회영향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영복 교수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로젝트형 사회적 거래소, 싱가포르·영국·캐나다 등지의 상장 유통형 사회적 거래소 등 사회적 거래소의 국제 동향을 소개한다.

조 교수는 특히 부산시·한국거래소·사회적기업연구원·민간투자자의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상장과 자금 모집, 기업정보 공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 운영기관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프로젝트 수행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거래소 부산 설립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붕괴 원인은 지지대 부실"

경찰 "재설치 안하고 보강작업만"…공사관계자 6명 입건

지난달 19일 4명의 목숨을 앗아 간 부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상부 구조물 거푸집 붕괴사고는 거푸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지지대(일명 까치발) 설치 불량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4일 '부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공사현장 직원 조사 결과 거푸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까치발 설치 부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붕괴된 부분은 비상주차대가 들어설 곳으로 기존 도로에서 확장된 부분인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밑에 설치한 가시설물인 까치발 설치 불량 때문에 타설 작업 때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푸집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붕괴사고 수일 전 까치발이 틀어져 있다는 보고를 받아 까치발을 해체한 뒤 재설치해야 했는데도 보강 작업만 해 구조적 부실을 유발, 붕괴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현장 목공반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사 작업 후 꼭짓점 4군데에 설치된 까치발이 바깥쪽으로 20㎝ 정도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 붕괴사고 전날인 지난달 18일 까치발 수정 작업을 했고 사고 당일인 19일 보강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까치발 제작업체에 문의한 결과 까치발이 20㎝ 정도 틀어져 있으면 까치발을 보강하는 정도론 안 되고 해체 후 재설치를 해야 한다는 기술적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틀어진 까치발을 재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과 하도급 공사업체 2명, 감리단 2명 등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과실이 큰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붕괴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부주의 ▲펌프카에 의한 외부 충격은 공사현장 관계자 조사와 시뮬레이션 결과 붕괴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북항대교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남구 감만동을 잇는 다리로 연장 3331m(사장교 1.114㎞, 접속교 2.217㎞), 넓이 18.6~28.7m(4~6차로)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부산항 북항을 횡단하는 북항대교는 부산신항에서 녹산·신호 산업단지를 거쳐 명지대교~남항대교~광안대교~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망(항만 배후도로)의 한 축이다. 북항대교 공정률은 95% 안팎이지만 접속도로는 지하화 등을 둘러싼 인근 주민과 갈등 등으로 늦게 착공해 현재 공정률 65%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영도대교 도개 보자… 시민 북적 14일 오후 부산 영도다리 인근에 시민들이 낮 12시 하루 한 차례 도개되는 영도다리를 보기위해 몰려있다. /연합뉴스

에어부산 "5년 연속 흑자 낼것"

매출 3500억 영업익 100억 목표 14개 노선 운항

에어부산이 올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매출 목표는 3500억원, 영업이익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5%, 190% 수준으로 잡았다.

우선 올 한 해 에어버스사의 A320시리즈 항공기 4대를 신규로 도입해 모두 13대의 항공기(현재 11대, 신규 도입 4대, 반납 2대)로 14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에어버스 기종은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부산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A320시리즈 항공기는 국제선 단거리 노선뿐 아니라 중거리 노선에서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이다.

에어부산은 향후에도 A320 시리즈 항공기를 도입, 2016년까지 기종을 단일화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에어부산은 올해 취항 6년차에 접어든 만큼 기존 노선의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자 국내 일부 노선과 중국, 동남아 일부 노선 증편으로 스케줄 경쟁력을 극대화해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기성 항공사와는 차별화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 지속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져왔다"면서 "이를 위해 올 한 해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 내실을 탄탄히 다져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순기자 hjs@metroseoul.co.kr

3D 환경영화 무료로 즐기세요

내일 영화의전당서…드라마 '온화한 일상'도 상영

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은 1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환경영화 무료 상영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에너지 절약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부산 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영화는 2012년 태국에서 제작된 환경 애니메이션 '에코플래닛'(81분)과 같은 해 일본에서 제작된 환경 드라마 '온화한 일상'(102분) 두 편이 상영된다. 두 영화는 16일 오전 10시40분과 12시30분에 각각 시작한다.

환경애니메이션 '에코플래닛'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3D로 상영된다. 지구를 파괴하는 치명적 바이러스 'BUCT'와 맞서 싸우는 꼬마 영웅 삼총사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에너지 절약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이다.

'온화한 일상'은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인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와 일상의 변화 등 그린 작품으로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지역 시민이 큰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이다.

관람 신청은 환경재단 홈페이지(www.greenfund.org)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부·울·경 중기에 1조 대출

BS금융지주 부산은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빅 스텝(Big Step) 2014 중소기업 특별대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략산업과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유망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업 운영 10년 이상의 향토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저 1억원 이상이며 대출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에서 2%까지 감면 가능하다.

부산은행 신규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3%대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BN그룹 비아이피 우수기업 선정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우수기업 인증서 전달식'에서 부산 대표향토기업 BN그룹 비아이피 배건우(오른쪽) 상무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인증서를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46.07 (-2.65)	512.27 (-0.65)
금리	**환율**
2.90 (+0.01)	1059.00 (+3.00)

뉴스 & 뉴스

보금자리론 소득공제 간편

●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정연채기자

수출·무역수지 사상 최대

●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지난해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2.1% 늘어난 5596억 달러, 수입액은 0.8% 줄어든 5156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4.5%)와 자동차 부품(6.0%)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13.3%), 무선통신기기(11%) 등도 기여했다. 반면 석유제품(-6.0%), 액정장치(-8.4%), 선박(-5.4%)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승하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제작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2-2100
독자센터	02)721-9365

2002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66

부동산 시장의 회복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법원 경매장으로 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아파트 경매 수요 급증·낙찰가율 82%로 상승

14일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새해에 입찰이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48.4%로 집계됐다.

이는 경매에 나온 아파트 2건 중 1건은 주인을 찾았다는 의미로 2008년 5월 54.7%를 기록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낙찰가율도 상승세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2.5%로 2011년 4월(83.1%)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1월 74.1%와 비교하면 8.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박선옥기자

'낙하산·르완다 LTE' 그만 접어야

긴급진단 - 이석채 체제 공룡이 된 KT, 변해야 산다

[글 싣는 순서]
① 위기의 KT, 어디로 가나
② 내부 혁신 이 우선이다
③ 이런 관행 괜찮나
④ ICT서 바라보는 황창규호

전사 IT 플랫폼 새로 구축하는 BIT도 재검토를

KT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베어야 할지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시절에도 이어진 낙하산 인사 문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에 이르기까지 황창규호가 출범 전부터 많은 숙제를 안게 됐다.

◆황창규호, 낙하산 인사 청산해야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정성복 부회장 사임 이후 30여 명에 이르는 낙하산 임원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일영 코퍼레이트센터 사장과 김홍진 G&E부문 사장이다. 두 사람은 BT 출신으로 이 회장 취임 이후 KT에 인사해 주요 임원이 됐다.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일영 사장과 김홍진 사장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P 상무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각에선 황 회장 취임 후 관료 출신의 H씨를 부회장으로 앉힐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H씨는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혐의와 관계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사업 수익성 의문

르완다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내부에서도 외시가 어려운데 당장에 수익이 보이지 않는 대규모 해외 사업을 굳이 추진하는 게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르완다 프로젝트의 경우 이 전 회장이 르완다 정부에 LTE 구축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KT가 25년간 LTE망 도매업 독점 조건으로 총 2700억원의 투자 규모 중 1500억원을 내기로 한 것이 발단이다. KT 관계자는 "KT가 1500억원을 투자하면 매년 이익 수준이 최소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기존 계약의 유효성도 바뀔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BIT 프로젝트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업은 전사 IT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해외 시스템통합(SI) 업체인 액센추어에 일감을 몰아주며 고비용이 발생,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2011년 이사회에서는 3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9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됐다. 무려 1조원가량이 이미 투입된 것. 그럼에도 이 프로젝트는 미진표를 찍지 못하며 추가로 3000억원가량의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신용카드로 터치하면 공인인증 한방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보안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 등을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한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인 신용카드로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물간 미국산' 중국서 인기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에서 한물간 실크 꽃무늬 벽지도 중국에서는 우아한 신상품이다.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습격에 대응 못 하던 미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제품을 '역발상' 전략으로 선보이며 중국에서 반격을 시작했다.

최근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는 캘리포니아 와인, 벽지, 공기청정기, 폭발물 탐지기, 장난감 등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제품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97년 역사를 자랑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와인양조장 '샌안토니오 와이너리'는 매년 전체 와인 생산량의 15%에 달하는 70만 병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와인양조장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한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며 "레드와인이 중국 요리와 잘 어울리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해와 스모그가 심각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오란사'는 고급 공기청정기를 선보였다. 대당 가격은 2000~3000달러(약 211만~317만원). 오란사의 공기청정기 500대는 지난해 11월 중국 시장에 소개되자마자 순식간에 동이 났다.

2013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하트필드에 위치한 장난감 제조업체 케이넥스의 제조 공장을 찾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AP

미국에서 '왕년의 인기 상품'으로 판매가 주춤한 실크 벽지도 중국에서는 인기 만점이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중국의 신흥 부호들에게 미국산 벽지는 엘리·왕서방 벽지와 차별화되는 명품 벽지다. 벽지 브랜드 '월퀘스트'는 현재 전체 매출의 약 30%를 중국에서 벌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소개된 소형 폭발물 탐지기와 기차놀이세트 등 어린이 장난감도 인기다. 특히 중국인 부모들이 '소황제'로 불리는 한 자녀를 위해 미국산 교육용 장난감을 즐겨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장난감의 85%가 중국산이지만 미국산 제품도 중국에서 '환제의 장난감'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조선미기자

현대차 '정의선 승계' 가속도

현대엔지니어링-엠코 합병 검토 경영권 해결 포석

현대차그룹 계열의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이 기정사실화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 승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현대건설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 추진의 표면적인 이유는 '시너지' 효과다.

현대엠코는 주택, 일반건축, 토목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시공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전, 화공 플랜트 등 해외 설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룹 전체로 본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룹 내 또 다른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이미 현대엔지니어링과 시너지 구조 정리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키워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에 현대차그룹 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본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1643만 주)를 총수 일가가 사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약 5조원이 필요하지만 정 부회장이 가진 주요 계열사 지분은 글로비스 31.88%(2조7000억원)와 비상장사 현대엠코 25.06%(증권업계 추산 5000억원)로 3조원에 불과하다.

/박선옥기자

삼성 뮤직 '빅뱅 콘서트 티켓' 경품 이벤트

삼성 뮤직은 14일부터 21일까지 삼성 뮤직에 가입 후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14 빅뱅+α 인 서울'의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하는 '삼성 뮤직 x 빅뱅 콘서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 뮤직 x 빅뱅 콘서트는 삼성 뮤직과 YG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제1탄으로 이벤트 참여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14 빅뱅+α 인 서울 리허설 무대와 본무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프라이빗 패키지 ▲콘서트 티켓과 빅뱅 휴대전화 액세서리 세트가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를 준다.

또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노트3 로즈골드' 모델과 빅뱅 멤버의 사인이 담긴 S뷰 커버가 포함된 갤럭시 노트3 패키지를 제공한다.

/김태균기자

그룹 빅뱅의 공연 모습 /삼성전자 제공

"금 투자시기 올초 최적"

해외 주요 금융사들 "1분기 중 추가 하락했다가 회복" 전망

금에 투자하려면 올해 초가 최적기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하락세를 보인 금값이 올해 초 더 떨어졌다가 올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금의 매력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1분기 중 금값이 더 하락했다가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값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공 행진을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등 비롯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진 영향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준이 양적완화를 예상보다 빨리 줄일 수 있다는 전망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금값이 온스당 평균 13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말에는 1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금 수요국인 중국의 올해 금 수요가 1000t 수준을 유지하고, 인도에서도 올해는 금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점을 꼽았다.

호주 ANZ은행도 금값이 올해 1분기 115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연말에는 14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평균 금값을 1294달러, 연말 금값은 1380달러로 예상했으며 UBS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평균 금값을 1200달러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경기 회복세로 인해 올해 말까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제프리 커리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말 금 목표가격을 온스당 1050달러로 제시했다. 현재 가격 온스당 1251달러 대비 16% 낮은 가격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을 매도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미국 경제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금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강력한 인플레 압력이 없어 인플레 헤지 수요도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4대 금융지주 회장들 연봉 최대 40% 삭감

지나치게 높은 연봉 때문에 금융당국의 삭감 압박을 받아왔던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연봉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은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4대 금융도 금융공기업에 걸맞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왔으며 하물며 금융그룹이 버티다가 결국 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기관장 기본성과급 상한을 현행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조정, 연봉을 20~40% 삭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 임원의 연봉 성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하고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정원기자

김정태(오른쪽)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보신 선도식에 참석해 꽹과리를 들고 농악대를 이끌며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하나금융 제공

하나 금융 '글로벌 꿈' 박차

김정태 회장 "2025년 세계 40위 도약" 비전 제시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꾸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새로운 비전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과 김 회장의 비전은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시장의 변화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회장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목표는 ▲이익 기준 국내 1위 은행 ▲글로벌 비중 40% ▲비은행 비중 30% ▲브랜드 신뢰도 제고 등이다.

비전의 목표 시점인 2025년 하나금융그룹의 모습은 세전이익 기준 2012년 말 1조9580억원에서 3배 증가한 약 6조원, 이익 기준 국내 1등 은행, 세계 40위, 아시아 5위의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글로벌 부문은 2012년 말 기준 2370억원, 그룹 내 비중 15.7%에서 2025년에는 9배 증가한 약 2조원, 그룹 내 이익 비중 약 40%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현재 24개국 12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 국내 금융그룹 중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 글로벌 부문 확대를 위해 중국 및 인도네시아 지역의 현지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현지화를 선도하고, 무역금융에 독보적 입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트랜잭션뱅킹 확대 등 글로벌 금융 결제 시장도 선도할 계획이다.

비은행 부문은 2012년말 기준 1720억원 비중 11.4%에서 2025년에는 9배 증가한 약 1조5000억원으로 그룹내 이익 비중이 약 30%를 차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진정한 종합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박정원기자

또 당한 카드 회원들 '사과 쇼'도 지긋지긋

집중진단 - 위기의 카드사

[글 싣는 순서]
1.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원 창출 실패
2. 잇단 정보 유출로 신뢰 훼손
3. 과도한 현금서비스와 대출 제2의 카드대란 우려

툭하면 터지는 고객 정보 유출 영업정지·벌금 폭탄 '엄벌' 필요

최근 금융가를 강타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사는 최근 외주 직원이 빼돌린 1억 건의 개인정보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이 세 군데 회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도 정보 유출 사실이 적발됐다.

카드업계의 개인정보 유출은 경로도 다양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외부 용역 직원이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른 카드사들의 유출 건은 대부분 내부 직원들의 소행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에 대한 관리 허술과 정보 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신용으로 먹고사는 금융사인 카드업계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갔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을 파는 회사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보안 경시 풍조는 당장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회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대출 강요,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자메세지와 전화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본인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도 일부 포함돼 카드로 어느 마트·극장·병원·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지 사생활까지 노출돼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카드사들의 대응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표이사들이 나와 했던 대국민 사과는 보여주기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끝났고 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회원들에게 통지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도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정보 유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의 수많은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기관 경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원 경고, 직원 견책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고객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과태료 상한 조정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하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중소기업들 진지한 수출상담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4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각국 참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BC카드 모바일 결제 전문 서적 국내 첫 출간

BC카드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결제 관련 전문 서적 'M Payment(부제: 모바일 결제의 모든 것)'를 출간했다.

BC카드 측은 "급성장하는 모바일 카드 관련 서적이 없는 현실 속에서 회사 모바일 결제 전문가 4명이 공동 집필했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서적이 출간됐다는 점은 카드업계 전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책은 ▲모바일 결제란 무엇인가 ▲모바일 카드 규격 ▲모바일 결제 솔루션 ▲모바일 결제 인프라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됐다. 현재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김민웅기자 [illegible]

기업 접대비 '을의 비애'

국내 기업들 연간 6조6000억 지출 '매출의 0.19%'
중소기업 매출 대비 비율 '대기업의 5배' 부담

국내 기업의 접대비가 연간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중소기업청이 집계한 기업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비용은 모두 6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업원 1명 이상인 360만2476개사가 같은 기간 올린 연간 매출의 3450조8000억원의 0.19%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접대비는 기업 재무제표 계정상 판매관리비(판관비)에 속한 접대비 금액이며 국세청이 세법상 적용하는 접대비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부담이 대기업의 5배에 달했다. 대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0.09%에서 2011년과 2012년 0.08%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비율은 2009년 0.43%, 2010년 0.41%, 2011년 0.4%, 2012년 0.41%로 대기업보다 평균 5배 높았다.

이는 시장 경쟁 구도에서 대부분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접대비 규모도 대기업이 2009년 1조5000억원, 2010년 1조6000억원, 2010년 1조7000억원, 2012년 1조8000억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2009년 4조1000억원, 2010년 4조4000억원, 2011년 4조7000억원, 2012년 4조8000억원으로 배 이상 많았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높은 접대비 부담은 판관비 상승으로 직결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2012년 기준 대기업은 매출 2261조8000억원, 영업이익 105조5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평균 4.7%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매출 1188조9000억원, 영업이익 36조2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평균 3%에 그쳤다.

업종별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접대비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제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2009년 0.16%, 2010년 0.15%, 2011년과 2012년 0.14%였지만, 비제조업은 2009년 0.27%, 2010년 0.26%, 2011년과 2012년은 0.24%로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접대비 규모는 제조업이 2009년 2조원, 2010년 2조2000억원, 2011년과 2012년 2조4000억원인 데 비해 비제조업은 2009년 3조6000억원, 2010년 3조8000억원, 2011년 4조1000억원, 2012년 4조2000억원으로 평균 80% 이상 많았다. /김태균기자 ksati@metroseoul.co.kr

수산물 값 내리고 한우 값 오르고 14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굴비 판매대(왼쪽)와 한우 판매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는 설을 앞두고 최고 등급의 국산 갈치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40%, 삼치는 70%가량 내렸으며, 한우값은 지난해 한우 농가들이 사육 두수를 줄이기 위해 암소를 많이 도축해 상승했다. /연합뉴스

넥슨 2배 큰 '판교 사옥' 위용

창업 20년 게임 대기업 새 보금자리 공개 화제

넥슨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공개했다.

넥슨 김태환 부사장은 14일 판교에서 열린 신사옥 설명회에서 "1994년 벤처로 출발한 넥슨이 어엿한 스무 살 청년으로 성장했다"면서 "신사옥에서 더 새로운 게임과 참신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년 넥슨판 '둥지' 신사옥은 작은 벤처에서 게임 대기업으로 성장한 넥슨의 위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면적 6만5400㎡(1만9800평)에 대지면적 9117㎡(2760평)로 건립된 넥슨 신사옥은 지하 5층부터 지하 10층까지 총 15개 층 규모로 구성됐다. 입주 인원은 약 1500명으로 기존 강남 사옥 대비 사무 공간이 약 2배 늘어났다.

게임 애니메이션을 연구하는 '모션 캡쳐실'과 영상·사운드 통합 스튜디오 '찰리바' 등은 넥슨의 개발 역량을 보여준다. 사옥이 커진 만큼 임직원 편의시설도 늘어났다. 여직원 수유공간, 직원 수면실, 어린이집 등이 눈에 띄었다.

넥슨 서비스 컨텐츠 실장은 "넥슨 판교 신사옥에는 '잔중력' 소통 '재충전'이란 테마가 담겨 있다"면서 "현재 30여 개의 모바일게임을 자체 개발한 데 이어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iun@

삼성 올해 50조 투자

삼성그룹이 올해 50조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1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간담회 이후 올해 50조원가량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고용 계획과 관련, 지난해 수준인 2만6000여 명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용 인원은 1000~2000명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화정역 옆 1인용 '힐링하우스'

전용율 높고 풀옵션 제공 입주 전 분양 마감 기대

국내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힐링하우스'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힐링하우스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보 1분 거리의 로데오거리 중심에 입지한 싱글하우스다.

로데오거리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메이브존, CGV, 덕양구청, 정부민원종합청사, 명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있다. 또 화정터미널, 광역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이라 서울역, 여의도, 영등포, 신촌 등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권인 데다 교통도 좋아 공실 걱정이 없고, 임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조기 분양 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텔과 차별화한 설계로 전용률을 높였으며 LCD TV, 에어컨, 핫플레이트, 침대, 전자레인지, 빌트인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 제공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법무사가 에스크로우 제도로 자금 관리를 해줘 안정성을 더했다. 문의 1588-5473 /박선옥기자

'악성코드의 바다' 모바일에 100만개

지난해 발견된 모바일 악성코드가 100만 개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4.7배나 증가한 수치다.

안랩은 지난해 1~12월까지 수집된 모바일 악성코드가 총 125만1586개로 2012년(26만2659개)보다 376%나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1년(8290개)에 비해서는 1만4997%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스미싱 악성코드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206개가 수집돼 29개가 발견된 2012년 대비 약 180배(1만7852%)나 급증했다.

안랩은 개인화되고 고도화된 스미싱 공격이 발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국현기자

설 제삿상 뛰는 물가 꼼짝마

성수품 등 28품목 특별관리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쌀, 배추, 휘발유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특별 관리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 여건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15일부터 2주간 매일 물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휘발유 등 28개 품목이다.

특별 공급 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하루 7800t으로 평소보다 1.6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611곳에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으로 시장별 설 성수품 구매 비용 등 알뜰 구매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달 중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에 빌려주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hkim@

겨울 스낵 강자…고구마냐 감자냐

저지방·영양간식 제품 등 잇따라 출시…시장 경쟁 심화

감자스러운 추위에 외출을 삼가는 '방콕족'이 늘어남에 따라 집 안에서 맛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겨울철 대표 간식인 감자와 고구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영양 간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그대로 살린 고구마 스낵 제품부터 식사 대용까지 겸할 수 있는 음료 제품까지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감자로 된 간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자칩이다. 감자 스낵 시장은 재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3000억 여원에 이르렀으며 감자 분말로 모양을 성형한 성형감자 스낵과 생감자를 직접 튀기는 생감자 스낵 제품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성형감자 스낵이 강세였다면 2012년부터 생감자칩 시장이 1000억 여원으로 성장하면서 성형감자 스낵의 매출을 추월했다.

농심 켈로그가 최근 출시한 구운 감자칩 '스페셜K 라이트 칩'(사진 오른쪽)은 21개의 감자칩(1회 제공량)이 93kcal 밖에 되지 않아 몸매 관리 중인 여성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워크림 어니언맛과 허니바베큐맛 등 다양한 맛이 있다.

농심의 수미 감자를 원료로 한 '수미칩'도 저지방 감자칩으로 100% 국산 감자로 만들었으며 지방 함량이 일반 감자칩보다 25%가량 낮아 착한 감자칩으로 통하며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8%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오리온의 '포카칩'(왼쪽)은 성인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꽃미남 배우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김수현을 제품 전면에 내세워 디자인 변화를 한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에 출시한 명동 대표 먹거리 회오리감자 모양의 크라운제과의 '돌풍감자', 제작년 출시돼 출시 1년 만에 2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한 해태제과의 '자가비' 등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인기를 끌면서 감자 스낵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저칼로리에 섬유질, 칼륨,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밥보다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인기있다.

정정원이 출시한 '고구마츄'는 신선한 고구마를 바로 쪄서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말린 고구마 스낵 제품이다. 설탕 및 합성감미료의 사용 없이 100% 고구마로 만든 자연 건강 간식으로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쫀득쫀득한 식감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파우치 1회 분량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등 식사 대용으로도 적격이다.

농심은 생감자칩인 수미칩에 이어 고구마로 만든 '강미칩'을 새로 선보였다. 30대 이상 성인을 주로 겨냥한 강미칩은 설탕으로 맛을 낸 다른 고구마 스낵과 달리 사과 분말로 양념해 고구마 특유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올가홀푸드도 유기농 백미와 현미·고구마로 만든 영양 간식인 '자색 고구마 스낵'을 판매하고 있으며 풀무원은 쌀 껍질을 벗겨내고 만들어 바른 맛을 없앤 떡 먹는 두부인 소이데이에 고구마를 넣어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소이데이 고구마'를 출시했다.

/양성운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군포지점 [illegible] 지점장과 칭찬 택배 사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NS홈쇼핑 제공

'칭찬 쿠폰' 택배사원 호평

N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칭찬 쿠폰' 제도가 이용자는 물론 택배 사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택배 품질을 평가할 수 있고, 택배 사원은 면대면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4일 NS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스마트택배 앱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소비자의 '칭찬 쿠폰'은 모두 6997장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 한 달 만에 3222명의 '친절 택배 사원'이 탄생했다.

이 중 3200여명의 택배 사원들(CJ대한통운 수원지점 60명, 평택지점 58명, 군포지점 57명 등)이 각종 선물을 받았으며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우수 택배 사원'도 수천명에 이른다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우수 택배 사원을 대상으로 각종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많지만 '이용자의 의견과 칭찬'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이 칭찬 방식은 마일리지 별점제로 이용자로부터 별점 5개(만점)를 받은 택배 사원에게 칭찬 쿠폰 1장이 발급된다. 쿠폰을 모은 택배 사원은 연간 최대 50만원 상당의 NS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이 준비한 선물 중에는 쌀, 생수, 10만원 상당의 NS상품권 등이 있다.

한편 NS홈쇼핑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소비자 가운데 매월 1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NS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벌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과자 포장 최대 5배 뻥튀기

4개 제과업체 20종 분석

일부 과자류의 포장 상자가 내용물보다 최대 5배나 과장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낱개 포장, 질소 포장, 완충재, 받침접시(트레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몸집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제과·오리온·해태제과·크라운제과 등 4개 제과업체에서 판매하는 과자 20종의 포장 비율을 직접 측정 조사한 결과, 17개(85%) 제품의 내용물의 부피가 포장의 절반에 그쳤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포장이 가장 크게 '뻥튀기'된 제품은 오리온의 '마켓오 리얼 브라우니'로 은박지 낱개 포장과 완충재를 걷어낸 실제 내용물의 부피는 171.8㎤였다. 하지만 이는 박스 부피(1021.2㎤)의 16.8%에 불과했다. 결국 포장 상자의 83.2%는 빈 공간이어서 포장이 내용물보다 5배나 큰 셈이다. 롯데제과의 '가또 화이트'도 낱개 포장과 트레이 등을 제거할 경우 과자가 최종 포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에 불과했다. 80.7%가 빈 공간이었다.

이어 오리온 '리얼초콜릿 클래식 미니'는 빈 공간 비율이 77.6%, 크라운제과 '쿠크다스'(77.1%), 해태제과 '계란과자'(76.2%), 오리온 '왕꿈틀이'(72.3%), 크라운 '초코하임'(72%), '직쏙'(70%) 등으로 70% 이상 과대 포장 제품은 6개에 달했다.

60%가 넘는 제품은 오리온 '고소미'(67.7%), 롯데 '엄마손파이'(69%), 크라운제과 '버터와플'(68.6%), 해태제과 '오예스'(65.2%), 크라운제과 '국희땅콩샌드'(63.9%), 해태제과 '버터링'(63%) 등 6개였다.

/양성운기자

독특하게 디자인해야 뜬다

기업들, 아티스트와 협업 통해 제품 내놔

새해에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각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기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독특함을 내세운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일정 기간에만 판매하는 스페셜에디션을 제작하는 등 독특한 자신만의 제품을 가지고 싶은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방·욕실용품 제조 기업인 콜러는 '볼드 아트(Bold Art)'라는 기업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술 작가와 협업해 개성 제품과 차별화된 '아티스트 에디션'(사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고대 유럽 및 아시아 왕실 디자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우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세면대·양변기·변기 시트에 적용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시계 브랜드 '스와치'도 브랜드 탄생 30주년을 맞아 '코스타 미카(MIKA)'와 스페셜 콜라보레이션한 제품 2종을 최근 출시했다. 두 시계는 낯선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TotemPole)'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디언 마을의 상징인 토템폴과 한국의 장승을 연상시킨다.

MCM은 디자이너 '크레이그 레드만(Craig Redman)'과 '칼 마이어(Karl Maier)'와 협업해 '크레&칼 바운드 스노우돔' 리미티드 에디션을 윈터 홀리데이에 맞게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바운드 스노우돔'이라는 테마로 눈송이가 내려앉은 듯한 겨울 전경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기자

산양분유 10주년 이벤트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벌인 '후디스 산양유아식 10주년 사랑나눔 이벤트'가 기업 이벤트에 자선봉사를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자 한 명당 1000원씩 적립된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적 성격 덕분에 시작부터 화제를 모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엄마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적립된 기부금은 추후에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직장인 "출근길 가장 피곤"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95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피로도'를 조사한 결과 피로 강도는 4.2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피로도가 가장 심한 시간대로는 출근길을 47.9%(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았다. 퇴근길(36.4%), 오후 2시(22.6%), 오후 3시(22.1%), 오후 4시(17.9%) 등이 뒤를 이었다.

피로에 대한 원인으로는 '업무 스트레스'(72.2%)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야근(27.4%), 혼잡한 출퇴근길(21.0%), 직장 상사와의 마찰(19.6%), 나이(15.3%), 잦은 술자리(11.6%) 순으로 나타났다.

피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면(85.4%)이 1위로 꼽혔다. 적당한 운동(38.2%), 취미 생활(34.3%), 연인·가족과의 시간(29.9%), 보양식(13.5%) 등을 거론한 직장인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홈스쿨·학원운영에 적합

기능성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뜨겁다. 학습·교육 기능이 있는 보드게임은 학생들에게 체험보육을 하는 또 다른 교사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능성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은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한 자격 과정이다.

보드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활용해 건전한 게임 문화 저변을 확대시키고 보드게임 시장의 활성화와 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12월 개설됐다.

매월 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능성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2급)에서는 젬블로, 라오콘드, 셈셈 시리즈 등을 개발한 국내 유명 보드게임 개발자 및 보드게임 교육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보드게임 활용 수업의 교육적 효과 연구 논문 리뷰, 상담 기법 등의 이론 및 보드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실습이 포함됐다.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0여 명의 보드게임 지도사를 배출했으며 현재 23기까지 시행됐다.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 수료생 중에는 현직 교사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학교 수업 방과 후 교실,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교육 현장에 진출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홈스쿨이나 학원 등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백성훈기자

'대표님' 아니죠 '비노' 맞습니다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⑦ 카카오

서로 영어이름 부르는 수평조직 매주 수요일 전직원 한자리 회의 5년 근속자 3개월 유급휴가 혜택

"전 우주 통신규약을 꿈꾸는 카카오팀에 합류할 열정 넘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인터넷업체인 카카오 채용 홈페이지(recruit.kakao.com)는 마치 SF영화 홍보 문구 같은 안내문으로 방문자들을 맞는다. 아래에는 '카카오 행성 생활'이라는 이색적인 소개도 들어있다. 카카오의 기업 문화도 이처럼 톡톡 튄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는 사무실 분위기부터 기대 이상이다. 사무실 곳곳에 비치된 이동용 칠판보드와 책상 위에 붙어있는 노란색 영문 이름, 서서 일하는 책상 등이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특히 직원들이 서로를 '브라이언', '벤' 등 영문 이름과 함께 '크루'(승무원)로 호칭하는 모습은 마치 외국의 유명 IT업체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커뮤니케이션팀 이가연씨는 "김범수 의장, 이제범·이석우 공동대표도 사내에서 브레인, JB, 비노로 불리고 있다"며 "이 같은 호칭은 '대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하기 힘들지만 '비노, 그건 아닌 것 같아요'는 쉽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크루들이 사내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의 놀라운 기업 문화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무려 200명 가까이 채용해 5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지만 매주 수요일 사내 '카카오광장'에 전 직원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거르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것은 물론 동료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쏟아진다. 특히 도움을 받은 동료에게 '카카오 팀' 구입에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카카오십' 제도도 호응이 높다.

여기에 사내 모든 '크루'의 업무와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그룹웨어 '카카오 아지트'도 수평적 소통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카카오의 복지제도도 다른 벤처업체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카카오에서 5년 근무하면 3개월간의 유급 휴가와 특별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10여 명이 '선물 같은' 5년차 휴가를 다녀왔다. 남녀 휴게실은 물론 직장맘을 위한 수유실도 갖추고 있고 자출족(자전거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자전거 주차 공간도 마련돼있다.

◆올해 200명 넘게 채용 예정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카카오는 올해도 200명 넘는 신규 '크루'를 뽑을 예정이다. 공채는 물론 사내 추천, 채용 홈페이지 인재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영진 P&C(People & Culture) 팀장은 "카카오는 세상을 바꿀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라며 "재야의 고수들이 카카오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카카오톡 PC 버전이 나오기 한참 전인 2011년 대학교 졸업반인 한 학생이 직접 만들어보겠다며 인재풀에 아이디어를 올려 화제가 됐었죠. 이 학생은 인턴으로 입사해 현재 정규직으로 카카오 행성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영진(사진) P&C(People & Culture) 팀장은 이처럼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면 '카카오 행성'에 충분히 승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만의 탁월함 가진 창의적 인재 중용

▶기업 문화가 다소 파격적이다.

▶▶상사를 영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처음에는 누구나 꺼린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카카오만의 수평적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 행성 가이드북'도 나눠주고 있다.

▶근무 여건도 자유로울 것 같다.

▶▶카카오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바삐 가며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다. 자율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분명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정에 야근을 자원하는 '크루'들이 많다.

▶합격 비법이 있다면.

▶▶카카오는 소위 '스펙'보다는 자기 분야에 탁월함을 지닌 인재를 원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비디오게임인 '철권' 세계 챔피언에 오른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해 게임사업부에서 맹활약 중이다. 어려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 등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표현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⑦

첫 만남 대화 끊겨도 기다릴줄 알아야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이번 회에서는 각종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대화법을 소개한다. W스피치 협조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 스피치 연습을 해봤다.

처음 만났을 때는 공통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오늘 비가 내렸는데 뭐 타고 오셨어요?" "여기 식당 예쁘죠?" 식으로 본격적인 대화 이전에 긴장을 푸는 것이다. 혼자 경험한 이야기 또는 본인만 재미있는 경험담은 초반 대화 소재로 부적절하다. 본인은 신나서 말하지만 상대방은 공감하기 어려워 지루함을 느낀다.

서로 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태도는 맞장구다. 예를 들어 "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저는 별로였는데"라고 답하면 대화가 끊기고 분위기가 서먹해진다. 본인은 드라마를 재미없게 봤더라도 "그러셨군요. 정말 인기 많았잖아요" "칠봉이 역을 맡은 유연석이 멋있지 않았나요?" 식으로 호응을 해주는 것이 좋다. 카페나 식당에서 상대방과 같은 메뉴를 시키는 것도 우회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기술이다.

적막감을 즐기는 자세도 중요하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가 끊기는 것이 어색해 본인이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적당한 적막감은 상대방의 말문을 열게 하는 배경이 된다. 적막감을 못 견뎌 본인이 나서서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게끔 몇 초라도 기다리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다.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표정도 신경 써야 한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밝은 얼굴로 대화하면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 회에서는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장윤희

요일 잘 고르면 런치·디너 알뜰

외식업계 '데이마케팅' 매출 부진한 요일 띄우기 효과

기존에 외식업계에서는 데이 마케팅으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와 같은 기념일을 판촉에 많이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특정 요일을 정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요일별 데이 마케팅은 지속되는 불황과 물가 상승에 질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업들도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요일에 데이 마케팅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고, 신메뉴 홍보도 진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회전초밥 레스토랑 스시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S멤버십 회원에 한해 모든 스시를 1700원 균일가에 판매하는 'S멤버십데이' 행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업체는 매월 22일을 '스시로데이'로 지정하고, 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든 스시 접시 1700원 균일가 행사를 벌이고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포인트 더블적립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피자헛의 경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멤버십데이로 정하고, 3만원 이상 결제한 멤버십 회원에 한해 1000포인트 차감만으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3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부메랑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스페셜 드링크 주문 시 동일한 음료를 하나 가격(7150원)에 하나를 더 제공한다.

샐러드&그릴 레스토랑 세븐스프링스는 그린멤버스 회원에 한해 매월 7일, 7%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린멤버스 회원들은 기존 멤버십 할인 10%에 7%가 추가돼 총 1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일인 달 7일에 방문할 경우에는 5% 추가 할인돼 총 2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GI 프라이데이스도 매주 인 요일을 '맘스데이(Mom's Day)'로 정하고, 12세 미만 어린이와 동반한 부모에 한해 3만원 이상 주문하면 키즈 메뉴를 1000원에 제공한다. 또 매월 마지막 금요일 '화이타스데이(FAJITAS DAY)'에는 화이타 풀(FULL)사이즈 주문 시 '케이준 후라이드 치킨 샐러드' 1개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

/황재용기자 @metroseoul.co.kr

이 엄동설한에 수영복 사는 그들

해외여행객 증가 따라 전년보다 36% 늘어나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영복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올겨울 수영복·비치웨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여름 비치웨어의 매출 상승률이 20%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설 등 연휴에 더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온천·워터파크가 많아진 점도 수영복·비치웨어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겨울에는 스키장, 여름에는 워터파크라는 공식이 깨지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온천이나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치가운·수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이스타일24 관계자는 "한파를 피해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해외여행객들과 새해를 맞이 수영으로 건강관리 하려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비치 아이템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산들통배고 최대 50% 할인

산들건강(www.sandle.co.kr)이 설날을 맞이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산들 대잔치 파격가 이벤트'를 1월 한 달간 진행한다. 또 산들건강 쇼핑몰에서 산들건강의 주력 제품인 산들통배고와 다른 상품을 동시 구매하면 산들통배고를 5% 추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들건강은 현지 고객들을 위해 본사에서 무료 시식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778-4568

21일 타파웨어 쿠킹 클래스

생활용품 업체 타파웨어 브랜즈는 21일 프리미엄 쿠킹 클래스 '타파셰프 아카데미'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이보은 요리 연구가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명절 요리'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 참가자 전원에게는 타파웨어 터보 치퍼와 미디엄 냉장기를 증정한다. 15일까지 홈페이지(www.tupperwarebrands.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중 '흥부와 놀부' 세배 드려요

코엑스 아쿠아리움 설 맞이 흥겨운 이벤트 마련

수중 동물원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설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아쿠아리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중 전래동화 공연 '2014 흥부와 놀부'를 선보인다.

공연은 기존의 동화를 각색해 꾸며지며 공연에서는 다이버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다. 또 2만여 마리의 정어리 떼와 골든트레발리의 환상적인 군무도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아쿠아리움은 특별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말띠 가족 할인과 외국인 할인으로 나뉘는데 우선 아쿠아리움은 말띠 가족 할인을 통해 말띠인 고객 1명과 그 가족 3명을 포함한 총 4인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외국인 할인을 이용하면 외국인은 본인에 한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아쿠아리움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두 경우 모두 증빙 서류를 지참해 매표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이탈리아 매운 요리 특선

● 밀레니엄 서울 힐튼이 1월 한 달간 이탈리아 식당 일폰테에서 '이탈리아식 매운 요리특선'을 선보인다. 요리특선은 버섯과 모개관자 산채 이탈리아식 매운 콩 수프, 보시조개와 홍합을 넣은 매콤한 오일소스의 스파게티, 칠리와 버섯소스의 안심 스테이크, 딸기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초콜릿 무스 등의 메뉴로 구성됐으며 아나티 비티니 일폰테(사진) 조리장이 직접 음식을 요리한다.

윈터 오이스터 페스티벌

● 그랜드 햄버서더 서울이 다음달 28일까지 인터내셔널 다이닝 레스토랑인 카페 드 셰프에서 '윈터 오이스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제철을 맞은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호텔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트 메뉴와 함께 다양한 단품 메뉴도 준비할 예정이다.

설 음식 가득한 특별 뷔페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이 설날을 맞아 오는 30일과 31일 피스트에서 다양한 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뷔페를 진행한다. 떡국, 갈비찜, 신적 등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며 오색 떡과 모듬 한과, 수정과 등의 디저트도 마련된다. 또 뷔페는 오픈 키친 구조로 돼 있어 주방장에게 면 요리나 파스타 등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천재교육 '우등생학습' 2차

천재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지인 '2014 월간우등생학습 겨울방학 2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2014 월간우등생학습 1년 정기 구독 상품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토리텔링 수학을 별권으로 추가 구성했으며 방학 기간 새 학년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방학호 '일일수학'을 신규로 제공한다. 형제 또는 자매가 함께 구독할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 3건 이상 구독 시에는 1만원을 증정한다.

이번 상품은 다음달 3일까지 천재교육의 에듀몬 홈페이지(www.edumon.co.kr)와 GS샵, 롯데아이몰 등에서 판매되며 1학년은 64종, 2~6학년은 67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12만9000원.

단돈 10만원이면 '홈 헬스장' 꾸미겠네

이렴한 줄 없는 줄넘기·다이어트 슬리퍼·스텝퍼…
공간·시간 제약없고 저렴한 다이어트 기구들 눈길

새해 결심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어트'가 있다. 이로 인해 매년 1월이 되면 헬스장을 등록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추운 날씨와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목표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만다.

굳이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고 재미있게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제품들이 많다.

생활용품 숍 다이소에서는 2000~3000원대의 원형아령, D형 아령, 베다귀아령 등 다양한 아령을 판매한다. 0.5kg, 1kg 두 종류의 무게 중 선택할 수 있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물 세척이 가능하고 폴리염화비닐(PVC)코팅으로 미끄럼이 방지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줄넘기는 10분만 해도 운동 효과가 큰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다. 1300K에서 판매하는 노라인 줄넘기 v3.1은 줄이 없는 대신 추가 달려있어 내 방에서도 실제 줄넘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 시에 줄넘기 횟수·시간·소모 칼로리까지 계산해주기 때문에 운동 관리도 가능하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 다이어트 슬리퍼는 어떨까? 텐바이텐에서 판매하는 '핑크레이디 밸런스 터치 킵업 다이어트 슬리퍼'는 발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로 제작돼 뒤꿈치를 들고 걷는 효과를 주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사무실 또는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걸으면 다리 근육을 긴장시켜 자연스러운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한다.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유산소운동과 함께 하체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스윙트위스트 스텝퍼를 활용하면 유산소운동과 하체근력강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보폭을 조절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발판 아래에 충격흡수 장치가 있어 안전하다. 마그네틱 센서가 부착돼 운동 횟수·시간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소모 칼로리도 계산해준다.

/정혜인기자 jenny@metroseoul.co.kr

스무디 전문가 '스무디오'에게 1:1 컨설팅 받으세요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은 14일 스무디 전문가 '스무디오(Smoothio)'가 직접 고객 컨디션에 맞는 스무디와 인핸서를 추천해주는 '스무디오 1:1 컨설팅 타임'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일 점심 12~2시, 주말 오후 2~4시에 시범 실시되는 이 행사는 미국 스무디킹 인증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스무디 전문가 스무디오가 고객의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건강 목표에 따라 적절한 스무디와 인핸서를 추천해주는 퍼스널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스무디킹 제공

딱 봐도 그집 애…미니미룩 쏟아진다

캐주얼·패밀리 브랜드 성인복과 닮은 키즈룩 인기

성인복과 같은 디자인의 옷을 어린이용으로 사이즈만 줄여 선보인 '미니미룩'이 인기다.

1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브랜드들이 어린이 라인을 론칭하거나 미니미룩을 선보이는 등 가족 단위 고객을 잡기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캐주얼 브랜드 헤리토리는 조카와 함께 입는 커플룩을 콘셉트로 '디탐쥐 티셔츠'의 미니미룩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K2도 패밀리룩 연출이 가능한 주니어 다운재킷 '코볼드'를 출시했다. 노스페이스의 '키즈 써밋 다운재킷'은 스테디셀러인 성인용 '써밋 재킷'을 어린이용으로 사이즈를 줄인 제품이다.

유니클로는 대표 제품 '히트텍'을 성인용부터 유아용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내놔 온 가족이 겨울 내의로 활용하기 좋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최근 3개월 매출을 보면 닥스 키즈·랄프로렌 키즈 등 패밀리 브랜드에서 키즈 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패밀리룩'도 덩달아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가나초콜릿 '솔로 위한 달콤 이벤트'

밸런타인데이 '소울충전' 페북에 200명 신청 받아

롯데제과 가나초콜릿이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에 함께할 소울메이트가 없는 솔로들을 위해 '솔로소울충전타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롯데제과 페이스북 페이지(apps.facebook.com/ghanasolo)를 방문해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2월 10일까지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월 12일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가 신청자들은 가나초콜릿 광고모델과의 달콤한 데이트 이벤트에도 동시 응모할 수 있다.

솔로소울충전타임 이벤트는 싱글 남녀 각각 100명씩 총 200명과 함께 밸런타인데이 당일인 2월 14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선 최신 영화 관람과 함께 Q&A를 통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 증정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귀찮은 남자들 하나만 바르면 출근준비 끝!

화장품업계 남성라인 올인원 제품 출시 붐

뷰티 브랜드들이 한 단계로 피부관리를 끝내고 싶어하는 '귀차니즘' 남성들을 위해 올인원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4일 이니스프리는 남성용 수분크림 '포레스트 포맨 옥트라 올인원 크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천연 보습 성분과 AHA 성분 등을 함유해 건조함·땅김·각질·거칠음증 등을 한 번에 관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르면 빠르게 녹는 가벼운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샤는 자사의 베스트셀러인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보라빛 앰플'의 남성용 버전을 내놨다. 남성용 올인원 에센스 '미샤 포맨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스킨과 로션 겸용으로 발효 효모액이 86% 함유돼 피부 손상을 개선한다. '미샤 포맨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은 복합 유산균 발효 성분이 주름·칙칙함을 케어,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니베아 맨의 '액티브 에이지 라인'역시 스킨·로션·에센스 기능을 한 병에 담았다. 액티브 에이지 라인은 '데이 올인원 에센스'와 밤 시간 피부 회복을 돕는 '나이트 올인원 에센스', 면도 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애프터 쉐이브 밤'으로 구성됐다.

/박지원기자

metro book

새로 나온 책

소설

12.21 종말의 날

스티브 도허슨/날레이북브리지

…고대 마야의 장수가에 표시돼 있다고 알려진 인류 종말의 날 2012년 12월 21일과 관련한 저자의 뛰어난 상상력을 살려냈다. 지금은 지나간 날짜이지만 여느 예언이 그렇듯 쉽게 많은 대중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인류 종말의 공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엿보기 좋은 집에서 오세요

벤 엘튼/알에이치코리아

한 지붕 아래 열 명의 경쟁자, 카메라 서른 대, 도청기 마흔 개. 그리고 생존자는 단 한 명뿐. 철저한 통제 속 피핑 톰 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대담한 살인사건을 은밀하게 목격할 수 있다. 엿보는 사회에 대한 조소와 후더닛 미스터리가 결합된 이야기는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자기계발

성공하는 인생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와키타 요시노리/럭스숍

앞으로는 나 혼자서 살아야 할 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 일본의 저명인 저널리스트가 왜 혼자 사는 삶에 관한 [illegible]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없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강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에세이

사기 너처럼 좋아졌어

신현림/북클라우드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의 저자 신현림 시인이 여전히 삶이 서툰 어른 아이에게 전하는 90편의 시를 담았다. 저자는 한 편의 시를 통해 때로는 짧고 강렬한 통찰을, 때로는 눈물을 뚝 그치게 만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미소만 지어도 마음이 꽃이 피어납니다

와타나베 가즈코/21세기북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든 멘토인 저자가 한없이 약하고 여린 이 시대 청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 마음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당신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정 생활

부모의 5가지 덫

비키 호플/세움

아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과잉 보호하는 걸 진정한 사랑인 양 착각하는 부모가 걸린 5가지 덫을 지적하고 어떻게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전한다. 저자는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여행

어느날 인도

이상혁/상상출판

어디를 가든 여행자라는 신분은 결국 이방인밖에 될 수 없다. 저자는 이를 깨닫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인도 사람들을 만나며 욕심을 비우고 마음 채우는 법을 배웠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순수하고 생생하게, 소박하지만 매력적으로 담고 있다.

건강

의료 부정 서적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48가지 진실

나가노 가즈히로/북앤월드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죽는 서글픈 사실.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환자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환자가 알아둬야 할 올바른 진실을 알리고 의료계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폭로한다.

■주간 e북 인기 순위

*집계 기간: 1월 6~12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류
1	내일	기욤 뮈소	[illegible]	소설
2	기황후1	장영철, 정경순	도서출판마음먹은	소설
3	[illegible] 세트	[illegible]	시공미디어	소설
4	기황후2	장영철, 정경순	도서출판마음먹은	소설
5	위대한 개츠비 세트	스콧 피츠제럴드	시공미디어	소설
6	정글만리1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종교
8	크리스마스 캐럴 세트	디킨스 찰스디킨스	시공미디어	소설
9	썰전	JTBC 썰전 제작팀	[illegible]	세계/사회
10	정글만리2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인터파크 제공

창조성의 다른 말 '용기'

애플 최초 마우스 디자인한 켈리 형제의 '창조적 삶' 노하우 가득

'창조'는 '혁신'이다. 누군가가 창조성을 발현하면 수십억 명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

게다가 창조성과 혁신은 오늘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며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재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이 우리 사회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너무 쉽게 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창조성을 화가, 소설가,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이른바 '창조적인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한다.

이에 애플 최초의 마우스와 세계 최초의 노트북 컴퓨터를 디자인한 디자인 기업 아이디오(IDEO)를 이끄는 데이비드 켈리와 톰 켈리 형제가 창조성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키우며 강화할 것인지를 소개했다.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톰 켈리, 데이비드 켈리/청림출판

이들은 창조성을 위해서는 창조적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결합된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적 잠재력이 내재돼 있지만 원초적 두려움이 창조성 표출을 막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창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적 잠재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 자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과 이를 위한 행동만으로도 누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켈리 형제는 자신들의 경험과 디자인적 사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털어놓는다. 직접 관찰한 다양한 창조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과 감정 이입적 접근법을 창조성 발현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켈리 형제는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하면 일과 삶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는 없지만 창조적인 사람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창조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지난 세월 바지 문화는 각각 독특한 패션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특히 195[illegible]년대 10대들은 구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거부감을 스타일로 보여줬다. 영화 '위험한 질주'에서 강렬 무뢰한을 연기한 말런 브랜도의 가죽 재킷(왼쪽)은 터프가이 이미지를 상징하고, 배우 제임스 딘이 즐겨 입던 청바지(오른쪽)는 반항아 패션을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 바지의 태생이 작업복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청바지를 입는 자신들이 제임스 딘 같은 반항아라고 믿었다. - '진즈 웨어 100년'(캘리 블랙먼/씨드포스트) 중 -

/박지원기자

설원 배경 생물학 무기 추적…영화 같네

화제의 책

질풍론도

히가시노 게이고/박하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화제작을 발표한 일본 대표 미스터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장편소설 '질풍론도'를 출간했다. 이 작품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한 주일 만에 100만 부의 판매량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이야기는 은색의 광활한 설원을 배경으로 생물학 무기를 쫓는 레이스가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비밀리에 가공할 만한 생물 병기 'K-55'를 개발한 구즈하라는 부당 해고된 연구소장에 대한 보복으로 생물 병기를 훔쳐 설산에 숨기고, 표식으로 너도밤나무에 테디베어를 걸어둔다. 구즈하라는 소장에게 설산과 테디베어가 찍힌 사진 두 장과 함께 3억 엔을 요구하는 협박 e메일을 보낸다.

범인으로부터 협박 e메일을 받은 연구소장은 마침 생물 병기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려온 만년 선임 연구원인 구리바야시 가즈유키에게 e메일의 내용을 보여주며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데, 범인은 그만 우연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숨겨둔 장소는 미궁에 빠진다.

이 책은 히가시노의 전작들처럼 대담한 전개와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사건의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독자들을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든다.

저자는 작품의 첫머리에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나 자신도 놀랐다"는 자평으로 쓴 글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지원기자

하루살이처럼 살고 싶다는 이 남자

영화 '플랜맨' 정·재·영

영화 '플랜맨'을 보고 있으면 정재영(44)은 천생 연기자다 싶다. 극중 1분 1초까지 계획하는 일명 '플랜남'으로 분해 마치 주인공이 진짜 자신인 것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원맨쇼를 펼쳤지만 실은 새해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무계획남'이다. 그는 "게을러 계획은 일찌감치 포기했다"며 멋쩍게 웃었다.

5년만에 코믹물 출연

약 한 달 전 개봉된 '열한시'에서 연기한 시간이동 프로젝트 연구원 우석을 비롯해 '내가 살인범이다' '글러브' 등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진지하고 무게 있는 모습과 다르다. 극중 웃기려고 하지는 않지만 무계획적인 삶을 무너뜨리며 어쩔 줄 모르는 어수룩한 모습이 오히려 웃음을 '빵빵' 터뜨린다.

2009년 개봉작 '김씨 표류기' 이후 5년 만에 코믹물로 돌아온 정재영은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계속 진지한 것만 하면 재미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캐릭터라 오히려 과장하지 않으려고 한 게 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덕분에 현장은 늘 쾌활하고 화기애애했다. 이번에 한지민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준 그는 "지민이가 정말 착하고 스태프에게 친절하다. 그런데 내게 절대 '오빠'라고 부르지 않더라. 별로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선배라고만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렇게 바쁜 건 10년만에 처음

정재영이 연기하는 한정석은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편의점 건너가는 시간 등 하루 일과를 오로지 알람에만 의지한 채 사는 인물이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후배 소정(한지민)의 도움으로 점점 정상적인 삶을 찾는다.

"실은 저와 닮은 점이 전혀 없어요. 전 상당히 무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 언젠가부터 그냥 나대로 살기로 했죠. 하루살이처럼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좋아요."

1분 1초 계획남 열연… 과장된 캐릭터 과장 안하려 애써
극중 인물 나랑 180도 달라… 선생님 같은 배우 되고파

말은 그렇게 해도 하루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이다. 그러나 그런 그가 요즘엔 그 어느 때보다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9일 개봉한 '플랜맨' 개봉을 시작으로 올해 '역린'과 '방황하는 칼날'까지 선보일 예정이라 일정이 홍보와 촬영 스케줄로 꽉 차 있기 때문이란다.

"지난해 두 작품을 촬영했는데 몰아서 한 듯한 느낌이에요. 보통 배우가 한 작품을 촬영하는 데 2~3개월이 걸리니 6개월은 집에 있었거든요. 너무 논다고 집에서 구박 엄청 받았죠. 하하하. 지금처럼 바쁜 건 지난 10년을 통틀어 처음인 것 같아요."

실제 성격은 게으른 편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은 때도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신기전'을 고되게 촬영하면서 두 번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후에는 봉사도 하고 담배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나약해 쉽게 변하지 않더란다.

자신의 성격에는 배우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게으른 성격이라 회사를 다녔으면 아마 열두 번은 더 때려 치웠거나 백수가 됐거나 아니면 장사를 했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떤 뒤 "연기를 운명처럼 만났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강요하지 않는 편이다. "아이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우린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권을 가지고 다투는 정도죠. 아이들도 나처럼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정재영에게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제 삶에 영향을 준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생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한 작품으로는 힘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영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울… 디자인/…

니콜 탈퇴… 카라 3인체제? 4인체제?

강지영 해외유학설… 그의 재계약 여부 따라 멤버 충원 등 좌우

걸그룹 카라(사진)의 니콜이 전속계약 만료로 사실상 팀에서 탈퇴했다.

DSP 미디어는 14일 카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년간 동고동락해온 멤버 니콜이 16일자로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안드로이드 앱 '아이 러브 뮤직'은 9일 게임의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타이틀 화면에 표시된 카라 단체 사진에서 니콜 이미지를 삭제했다. 니콜의 탈퇴를 확정지어라 본 것이다.

니콜의 탈퇴에 이어 또 다른 멤버 강지영의 팀 잔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DSP 미디어와 계약이 종료되는 강지영은 일단 재계약을 보류한 상태로 일각에서는 해외 유학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승연, 구하라, 규리가 DSP 미디어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카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지영의 재계약이 큰 역할을 한다.

막내지만 팀의 핵심 멤버인 데다 강지영마저 떠날 경우 3명 카라가 기존의 팀 색깔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칫 걸그룹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라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또 강지영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새로운 멤버의 충원과 앨범 활동 계획 등이 좌우될 수 있어 카라 팬들의 관심이 높다.

DSP 미디어 측은 강지영의 잔류 행보에 대해 "재계약을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향후 가수 활동과 학업 등 전반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은 탈퇴한 니콜을 제외한 멤버들이 카라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DSP 미디어 측은 "현재 멤버들이 드라마와 영화 출연 등을 검토 중이다. 작품이 결정되는 대로 올 상반기 개별 활동에 몰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앨범 발매 일정 역시 계획돼 있다"며 "올 한 해 카라는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탐석오기자

'음악저작물 무단사용' 이승철 소속사 고소당해

걸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와 가수 이승철(사진)이 법적 공방을 벌인다.

코어는 14일 오후 2시 음악 저작물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승철의 매니지먼트사 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코어 측은 "이승철과 그의 소속사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 '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를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OST 곡인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이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의 서비스분에서 발생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단독으로 정산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장이 접수된 오늘까지도 이승철의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성윤기자

윤종신 '응사 콘서트' MC

가수 윤종신(사진)이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콘서트'의 단독 MC로 나선다.

다음달 1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회(오후 4·8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 그는 전반적인 공연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 콘서트에는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주역 정우를 비롯해 고아라·김성균·민도희 등 배우 출연진과 함께 1990년대 인기 그룹인 더 블루·015B와 솔리드의 메인 보컬 김조한이 참석한다.

또 넬크의 '가질 수 없는 너'를 리메이크해 응사 OST로 발표한 선예·바이너리와 감성 보이스 유대관이 함께 라인업의 신구 조화를 이뤘다.

한편 tvN은 31일 오후 10시 설 특집 '노래로 응답하라 1994'를 방송한다.

/한성윤기자

플라이투더스카이 재결합

5년만에…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 발표"

남성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환희·사진 왼쪽, 브라이언·오른쪽)가 5년 만에 다시 뭉친다.

환희 측 관계자는 14일 "올해가 그룹이 탄생한 지 15주년 되는 해다. 일시적 맺은 건 아니지만 재결합을 기념하는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이투더스카이는 환희와 브라이언으로 구성된 보컬 듀오다. 1999년 1집 앨범 '즐라이 투 더 스카이'로 데뷔해 '데이 바이 데이' '중력' '남자답게' '미싱 유' '가슴 아파도' 등을 히트시켰다.

이들은 2009년 정규 8집 앨범을 끝으로 잠정 휴식기를 갖고 각자 솔로 활동에 전념했다. 환희는 현재 에이지투미디어를 설립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브라이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한성윤기자

이효리 부부 '로필 3' OST 출시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결혼 후 첫 음악 작업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tvN 월화극 '로맨스가 필요해 3'의 첫 번째 OST '돈 크라이'가 14일 출시됐다.

이번 OST는 이효리 부부가 곡 작업에 몰입하기 위해 신혼집인 제주도까지 내려가 녹음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ST 발매와 함께 이들 부부의 담담한 작업 현장과 제주도 신혼집의 정경을 고스란히 담은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됐다.

'돈 크라이'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신주연(김소연)의 테마곡이다. 여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는 곡으로 때로는 가슴 찡한 아픔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효리가 작사와 작곡을, 이상순이 기타 연주와 편곡을 맡아 부부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됐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감성적인 노랫말과 마치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편안한 이효리의 보컬은 곡의 아련한 분위기를 더한다.

기타과 드럼이 함께 한 오리지널 버전과 별도로 이상순의 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어쿠스틱 감성의 기타 버전이 함께 발표돼 이효리 부부의 음악을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이효리가 참여한 tvN '로맨스가 필요해 3' OST 재킷. /CJ E&M 제공

한편 '로맨스가 필요해 3'는 홈쇼핑 회사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알파걸'들의 경쟁, 우정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13일 방송된 첫 회에서는 여성들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박근희기자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차려 이혼했다!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방송 / 1월 24일 첫방송

송지효 최진혁 이필모 최여진 클라라 연출 김철규 극본 최윤정

중국은 지금 '민준 앓이'

'별그대' 김수현 '남자배우' 1위… 커뮤니티 회원수 급증

배우 김수현(사진)이 중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시청률 25%를 육박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가 국내를 넘어 중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면서 주인공인 외계남 도민준을 연기 중인 김수현을 향해 집중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지난 오늘의 남자 배우 부문에서 14일 기준으로 김수현이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는 최근 중화권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아티스트들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드라마 상속자들의 이민호, 대만의 톱스타 임지령이 김수현의 뒤를 잇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바이두의 '한국 드라마' 부문 순위에서도 '별에서 온 그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인기에 힘입어 2년 전 국내에서 방영됐던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 '해를 품은 달'까지 3위에 올랐다.

또 김수현의 공식 웨이보와 바이두를 포함한 중국 포털사이트 내 생성돼 있는 김수현 커뮤니티의 집계 가능한 회원 수만 해도 14일 기준으로 92만 명을 육박했다. 회원 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어 김수현의 중국 내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중국에 김수현의 이름을 확실히 알린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방영 당시보다 현지 언론 및 광고, 공연 관계자들의 관심이 훨씬 뜨거운 상태"라면서 "중화권 유력 신문과 방송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영 후에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 현지 팬들과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완기자

'관능의 법칙' 엄정화 "열살 연하남도 OK"

배우 엄정화(사진)가 연하남에 대해 "열 살 연하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엄정화는 14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관능의 법칙' 제작보고회에서 연하남이 작업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내 나이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 왜 받아주지 않겠느냐"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내 나이쯤 되니 가정을 이룬 사람이 주변에 많다. 상대방이 아무리 어려도 적극적으로 다가와 준다면 나는 좋을 것 같다"면서 "어린 살에서 열 살 연하까지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도 괜찮은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선우선과 가수 박정현도 이성과의 나이 차이에 대해 "열 살 아래도 좋다"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황성운기자

'꽃보다 누나' 김희애·이미연 완판녀 등극

화제 속에 방영 중인 tvN '꽃보다 누나'(이하 '꽃누나')에 출연 중인 김희애와 이미연이 '완판녀'로 떠올랐다. 이들이 '꽃누나'에서 착용한 물건이 연일 완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첫 회부터 스타일리시한 패션으로 주목받았던 이미연은 공항부터 여행 내내 착용했던 블루 컬러의 백팩을 완판시켰다. 이 백팩은 출시 연휴도 채 안 돼 초기 물량 300개가 모두 동이 났다.

김희애는 '꽃누나'에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첫 방송에서 공항에서 선보인 검정 패딩 롱코트는 200만원대의 고가인데도 매진됐다. 이후 크로아티아 여행에서 입은 카키색 야상도 주목받았다. 라쿤 털이 목을 감싸는 이 스타일은 방송 후 곧바로 품절 대열에 합류했다.

또 김희애가 착용한 가방 역시 국내에서 전량 품절돼 소비자들은 구매대행이나 직접 구매를 통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운기자

떴다! 육아예능 종합세트

부자→가족 범위 넓히고 따뜻함 어필 · 감동·화제 두 토끼 잡아

'예능 대세'로 떠오른 가족 버라이어티의 확장 버전이 등장했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MBC '일밤-아빠! 어디가?'(이하 '아빠 어디가')와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가 순항 중인 가운데 13일 첫 방송된 SBS '오 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가 기존 가족 버라이어티와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임현식과 손주, 걸그룹 샤크라 출신 이은과 세 딸, 아이돌그룹 엠블랙 미르의 가족과 조카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가족에서 살지만 세 딸의 이토피로 쉬지만은 않은 육아를 하고 있는 이은 가족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SBS '오 마이 베이비' 임현식과 손주(큰쪽부터). /SBS 제공

'오마베'는 조부모와 손주, 엄마와 딸, 대가족 안의 아이라는 세 가족의 군상을 보여주며 아이를 통해 화합을 이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따뜻하게 전달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아빠 어디가' '슈퍼맨'과의 차별점은 확연히 드러났다. 두 프로그램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오마베'는 그 범위를 넓혀 가족 전체의 성장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시청률도 평균 시청률 7.0%(이하 닐슨코리아·수도권 기준), 최고 시청률 10.14%를 기록해 감동과 화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삼대 세 가족의 요절복통 육아 소동기를 담아낸 '오마베'가 앞선 두 육아 예능 프로그램처럼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정훈기자 sgye@metroseoul.co.kr

욕쟁이 꽃처녀 심은경 · 의리의 일진 박보영 · 개성만점 검객 하지원

'기센 여우들' 설 스크린 접수

'기센' 여자들이 올 설 극장가를 장악한다.

지난해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세계' '베를린' 등 거친 남자 냄새를 물씬 풍기는 영화들이 휩쓸고 간 빈자리를 현상금 사냥꾼, 욕쟁이 꽃처녀, 의리의 일진 등 강렬한 여성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나선 신작들이 메운다.

22일 개봉될 '수상한 그녀'는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꽃처럼 예뻤던 스무 살로 돌아가 빛나는 전성기를 누린다는 이야기다. '써니'에서 거친 사투리와 욕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심은경은 이 작품에서 꽃처녀가 된 할머니로 분해 또 한 번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와 막강한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같은 날 선보이게 될 '피끓는 청춘'의 여주인공도 기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1982년 충청도를 배경으로 불타는 농촌 로맨스를 그린 이 작품에서 박보영은 충청도를 접수한 여자 일진 영숙을 연기한다. '늑대소년' 등에서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국민 여동생'으로 군림한 그의 파격 변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코앞에 둔 29일에는 조선의 여자 현상금 사냥꾼 삼총사의 이야기를 그린 '조선 미녀 삼총사'가 개봉한다. 하지원·강예원·가인이 개성 강하고 매력 넘치는 검객으로 나선다. 이소룡, 성룡, 이연걸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강렬한 액션, 남장과 코믹 분장, 섹시한 밸리댄스 등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박은희기자 lohk0427@

'탈원전' 뭉친 두 전직 日총리 14일 일본 도쿄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왼쪽) 전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회동한 뒤 '탈원전' 연대를 기치로 도쿄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두 사람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음달 9일 치러질 도쿄 도지사 보궐선거는 호소카와 전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AFP 연합뉴스

'동해 병기' 한·일전 완승

미 버지니아주 '의무화 법안' 일본의 반대 로비에도 만장일치로 첫 관문 통과

올해 첫 외교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한승을 거뒀다.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를 한인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겨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로비전을 벌여왔는데도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을 상정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은 "최악의 경우 2명이 반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구두 표결에서 반대 글 외친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 한인단체 끈질긴 노력 결실

이번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의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된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2012년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돼 상원의 소위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상원의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중국군 "언제든 전쟁 준비"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總參謀本部)가 13일 각 군에 보낸 '2014년 전군 군사훈련지시'에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4일 대만 중국시보가 전했다.

영토 갈등 등으로 중국과 일본 간 무력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지시는 지난해 지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 당국은 2013년 전군 군사훈련지시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이 군의 핵심이라는 사고를 강화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바람 피운 올랑드 용서할 수 있다"

佛 퍼스트레이디 시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동거녀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르(48·사진)가 영부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면 올랑드 대통령의 염문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트리에르바일레르가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 때 영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리에르바일레르는 올랑드 대통령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명실공히 퍼스트 레이디로서 다양한 정부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까지도 서로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프랑스 연예전문 주간지 클로저가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의 밀회 소식을 전한 것. '대통령 스캔들'이 터지기 하루 전인 9일 소식을 접한 트리에르바일레르는 극심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더타임스는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의 보도를 인용, 트리에르바일레르가 고속열차 테제베(TGV)에 치인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감자 선물 '결례 아니네~'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미 대사관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 감자 두 개를 선물로 건네고 있다. 케리 장관은 지난 성탄절 휴가 때 라브로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아이다호 지역의 감자 이야기를 꺼낸 것을 기억해 아이다호산 감자를 깜짝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AP 연합뉴스

잉락 "총선 연기 논의하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조기총선 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락 총리는 최근 반정부 시위로 정정 불안이 심화되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태국 정부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조기총선 연기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를 포함한 모든 정파가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13일 반정부 시위대는 잉락 총리의 퇴진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조기총선 연기를 요구하며 방콕 셧다운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시민 수만 명이 참가했다.

/조선미기자

축구왕 호날두의 눈물

메시·리베리 제치고 5년만에 발롱도르 수상 … '역대 최고 2인자' 오명 벗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3년 시상식에서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에게 주는 FIFA 발롱도르를 수상한 후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가 아들과 연인 앞에서 '역대 최고 2인자' 오명을 벗었다.

호날두는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3년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FIFA 발롱도르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호날두의 아들 호날두 주니어와 연인 이리나 샤크가 함께했다.

이 상은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이날 호날두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앉아있던 샤크와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이어 호날두는 함께 무대에 오른 아들에게 트로피를 안겨주며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27·FC 바르셀로나), 프랭크 리베리(31·바이에른 뮌헨)와 함께 FIFA 발롱도르의 최종 후보에 선정돼 경쟁을 벌였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그는 2013년에만 56경기에서 66골을 기록, 각각 42골과 22골에 그친 메시와 리베리를 크게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08년 수상 이후 5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2009년부터는 메시가 독주하며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특히 2009년까지는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이 주는 발롱도르와 FIFA 올해의 선수가 별도로 선정됐기 때문에 호날두는 발롱도르와 FIFA 올해의 선수상이 통합된 후 처음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장병문기자

프로야구 9개구단 일제히 해외전훈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 폐지

2014년 프로야구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총성에 맞춰 9개 구단이 15일 해외 스프링캠프를 향해 출국한다.

선수들의 구단별 소속 훈련을 금하는 비활동 기간(12월 1일~다음해 1월 14일)이 끝나자마자 각 구단은 3월 초까지 미국과 일본 등에서 50일 이상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통해 전력을 키운다. 그러나 세부적인 캠프 목표는 구단마다 각각 다르다.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한국시리즈 통합 3연패를 이룬 삼성 라이온즈의 류중일 감독은 선수단 신년 인사에서 "세대 교체를 통한 점진적인 변화"를 올해 화두로 삼았다.

두산 지휘봉을 잡은 송일수 감독은 '무한 경쟁', 이만수 SK 감독은 '혁신과 변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지난해 LG 트윈스를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김기태 감독은 희망·진실함·도전이라는 세 낱 첫말이 담긴 노래를 선수단에 들어보라고 추천했다.

나머지 감독들의 바람이야 말할 것도 없이 1차 포스트시즌 진출, 2차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각 팀은 괌(삼성·KIA), 메이저리그팀의 훈련장이 몰린 미국 애리조나주(두산·LG·넥센·롯데·NC), 미국 플로리다주(SK), 사이판(롯데) 등 따뜻한 곳에서 올 시즌 축배를 들기 위한 첫발을 뗀다.

한편 국내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은 올해부터 사라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몸값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첫해 몸값 상한선 30만 달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 전년도 몸값의 25%로 제한한 연봉 인상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외국인 선수 보유와 관련한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던 보류권 5년 조항도 2년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경기 시간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 혹서기(6~8월)를 제외한 정규리그 개막 2연전(3월 29~30일), 4·5·9·10월의 일요일·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못박았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시작 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오후 6시30분으로 고정된다. 정규리그 주말(금~일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해당 경기는 월요일에 치러진다. 이사회는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 예산으로 221억8695만원을 확정했다.

/장병문기자

신봉식 알파인 스노보드 첫 톱10

스노보드 기대주 신봉식(23·고려대)이 한국 알파인 스노보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시리즈에서 톱 10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세마스포츠마케팅은 1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바드 가슈타인 대회' 평행 회전에서 10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스노보드 회전 경기는 정해진 코스에서 내려오는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이다. 소치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평행 회전은 두 선수가 나란히 출발해 좁은 간격의 기문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에서 월드컵 톱 10에 오른 한국 선수는 신봉식이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선수조차 없었다. /유순호기자

스노보드 기대주 신봉식(왼쪽)이 13일 오스트리아 바트 가슈타인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남자 평행회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이상헌 코치와 기뻐하고 있다. /세마스포츠마케팅 제공

'어딜 만져' 14일 열린 2013~2014 미국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와 시카고 불스 경기에서 가드 가렛 템플(17·워싱턴)이 포워드 마이크 던리비(34·시카고)를 앞두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워싱턴이 102-88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1위 모비스, 꼴찌 상대 역전승

외국인 선수 로드 벤슨이 맹활약을 펼친 울산 모비스가 5연승 신바람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자리를 굳혔다.

모비스는 14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주 동부와의 홈 경기에서 92-79로 이겼다.

최근 5연승의 모비스는 25승9패로 2위 서울 SK(23승10패)와의 승차를 1.5경기로 벌렸다. 또 최근 홈 경기 9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동부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11연승을 지속했다. 반면 동부는 최근 7연패를 당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9승25패가 된 동부는 9위 안양 KGC인삼공사(10승21패)와의 승차도 1.5경기로 벌어졌다.

이날 전반까지 37-43으로 뒤진 모비스는 3쿼터에만 15점을 몰아친 외국인 선수 로드 벤슨(25점 10리바운드)을 앞세워 승부를 뒤집었다. 3쿼터 시작 후 3분이 지나도록 동부를 무득점에 묶어놓고 이대성과 천대현의 3점슛, 벤슨과 문태영의 연속 득점으로 내리 11점을 넣어 승기를 잡았다. /장병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14일

모비스	24	15	30	23	92
동부	17	26	16	20	79

프로배구 전적 14일

우리카드	1	3	삼성화재
GS칼텍스	3	1	인삼공사

굴과 샤블리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굴은 겨울을 대표하는 보양식이다. 굴에 포함된 철분, 구리·칼슘 미네랄은 빈혈을 완화시키고 정력을 강화시킨다. 여성의 피부미용에도 좋고 낮은 칼로리로 인해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문제는 굴 자체에서 나는 비릿한 향과 맛 때문에 굴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 굴 고유의 향만 없다면 누구나 즐기는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다.

비릿함을 줄이는 데는 굴 요리에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면 좋다. 이 대목에서 프랑스 샤블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고의 와인 산지 부르고뉴의 최북단에 위치해 외딴섬처럼 독립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 바로 화이트 와인을 빚는 샤르도네 품종의 땅이다.

샤블리 샤르도네는 다른 곳과 달리 미네랄리티가 뛰어나 '3S(Stony, Steely, Smoky)'의 대표 화이트 와인으로 인정받는다. 그 이유는 바로 토질 때문이다.

과거 바다였던 샤블리는 쥐라기 시절 형성된 땅으로 토양 전체가 조개 및 굴 껍데기의 화석과 석회석, 백악질이며 여기에 점토가 적절히 포함돼 있다. 점토가 적고 화석 및 석회석 비중이 높은 지역은 특히 키메리지앙(Kimmeridgean) 토양이라고 하며 가장 좋은 품질의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 즉 '샤블리 그랑크뤼' 및 '샤블리 프리미어 크뤼', 그리고 일부 '샤블리'가 만들어진다.

가장 낮은 등급인 '프티 샤블리'는 진흙이 더 많아 별도로 포틀랜디앙(Portlandian)이라고 불리는 토양에서 나온 화이트 와인이다. 과거에는 이 땅에서는 포도나무를 재배하지 않았으나 샤블리 와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와이너리 영역이 확대됐다. 샤블리 와인은 하위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상큼함과 신맛, 과일 향이 풍부하다. 반대로 가격은 저렴해진다.

와인과 음식의 매칭을 이야기할 때 비슷한 느낌의 음식과 와인이 맞아져야 좋다는 게 첫번째로 거론되는 '최상의 조합'이다. 굴 화석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빚은 세련하고 상큼한 샤블리가 굴 요리와 최상의 조합인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샤블리 중에서도 저렴한 하위 등급의 '샤블리'와 '프티 샤블리'가 더욱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mcho@metroseoul.co.kr

날씨

1/15 水 일출 07:46 일몰 17:3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3/2, 수원 -8/2, 대전 -8/3, 전주 -8/3, 광주 -3/5, 제주 2/8, 강릉 -4/4, 울릉도 -3/2, 대구 -5/5, 포항 -5/5, 울산 -5/8, 부산 -6/7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고정신경의 혈성도가 높아지면서 수면 중일 때보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아침에는 가급적 급격한 체온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수	
감기 가능 지수	
천식 계절증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6
	7	9			1			3
	1	8		2	9		5	
			7	1			8	
					4			7
			2	9			4	
	3	2		7	8		6	
	4	1			2			8
			5					2

9								7
			2		5			
				6				
		6	1		4	9		
		5		8		6		
1	2						7	8
	8						9	
4			8		1			2
	3	7				8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맥스터 (제출처 미디어 리퍼리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6877
www.sajuq6.com

특별한 재능 없는 조카 걱정돼 요리 공부하면 미적 감각 발휘

두산산 여자 12월 11일 양력 오전 3시

Q 조카딸의 대학 진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림을 그리지만 뛰어나지 않고 문학이나 교육 쪽으로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출난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A 조카딸은 인성(印星) 학문이나 사고력에서 나오는데 미술을 잘하려면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재성(財星)도 발달돼 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합니다. 학생 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인지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 공부만 하다 보니 본인의 적성이나 재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조카따님은 맛을 잘 구분할 수 있고 손재주도 있어 요리로 재가 재력을 채우게 되면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겠으나 요리 공부를 선택한다면 미적 감각이 있는 편이어서 데커레이션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경 후 온갖 직업 전전했는데 전자제품 수리 기술 취업 도움

hyn 남자 50대 중반 11월 20일 밤 10시

Q 젊어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아버지의 도박 탓에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상경했습니다.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A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50대 중반이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부쩍 늘어난 요즘은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 전에 자격증을 갖고 많이 배우는 것이 익숙한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일 것입니다. 귀하는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니 공부는 어려웠지만 도전해 보십시오. 공부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주상으로 봤을 때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도시에서 살고 싶다면 전자제품 수리기술을 배우셔서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15일 (음 12월 1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불참석 때문에 지루한 하루 보낸다. 60년생 변수가 많으니 낙관하지 마라. 72년생 문서 일은 길게 보면 손해다. 84년생 금일수록 여유를 갖는 게 좋다.

소 49년생 대접받으려면 일 아껴라. 61년생 조언 구하면 고민은 쉽게 해결된다. 73년생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분하라. 85년생 방종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호랑이 50년생 배우자 아들 쑥쑥이에 감동받는다. 62년생 될 듯 말 듯 애만 태우는 하루. 74년생 공들인 일에 기쁨이 몰려온다. 86년생 이성 문제는 간단히 생각할 것.

토끼 51년생 상황 바뀌어도 원칙 지켜라. 63년생 긴장할 일이 갑자기 생긴다. 75년생 불확실한 계획은 빨리 접을수록 이득. 87년생 말하는 벗과 돈눈으로 반세운다.

용 52년생 말은 아낄수록 이득이다. 64년생 남몰래 속내는 감춰둬라. 76년생 성급한 투자는 눈물을 부른다. 88년생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 뿌듯한 하루.

뱀 53년생 하듯 땐 배우자에게 의지하라. 65년생 깜빡로 맞아칠 손님이 찾아온다. 77년생 힘들더라도 생겼든은 끼내지 마라. 89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말 42년생 새 일로 활력이 넘친다. 54년생 지금 유흥은 가까운 곳이 유리하다. 66년생 억하심어 유성해 움직일수록 이득. 78년생 뜻 이루려면 탈리해도 감수할 것.

양 43년생 사소한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겨라. 55년생 자영업자는 큰 거래처 생긴다. 67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마라. 79년생 머리 쓰는 일에는 행운이 따른다.

원숭이 44년생 손해에 경사가 생긴다. 56년생 저 숲은 새 세대에 담애라. 68년생 공들인 일은 통쾌한 결과 안겨준다. 80년생 거래하는 일에 변수가 있으니 대비하라.

닭 45년생 반대 의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57년생 귀인 전대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공돈이 생겨 즐거운 비명. 81년생 외로운데 불잔 권할 벗이 없는 격이다.

개 46년생 남독특으로 활용하면 이룬다. 58년생 배우자 말은 못 들은 척 지나쳐라. 70년생 존재감 과시할 기회 잡는다. 82년생 편안한 벗이라고 함게 생각 마라.

돼지 47년생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59년생 변화보다는 가던 길 가야 한다. 71년생 청색 계통이 행운 주니 참고할 것. 83년생 다시 없는 기회와 마주한다.